

《피구왕 서영》 독서 토론 활동지

1. 토론 도서로 정한 까닭

《피구왕 서영》은 아이들의 사회라 할 수 있는 ‘교실’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그 속에서 ‘진짜 나’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. 서영이는 안전한 무리에 속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.

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서영이의 선택을 따라가며 친구 관계에서 말하는 ‘주도권’이 무엇인지 또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진짜 내 모습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

2. 《피구왕 서영》 내용 요약

이서영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. 바로 자기 방 안에 ‘이서영만 아는 이서영’이 산다는 것입니다. 잦은 전학과 이사를 겪으며 서영은 친구들에게 마음을 깊이 주지 않는 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.

전학 간 학교에서 서영은 교실의 중심에 서 있는 유현지의 눈에 띄어 ‘피구왕’이라 불리며 소위 ‘주류(인싸)’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. 하지만 학교 밖 공터에서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난 ‘왕따’ 최윤정을 우연히 만나며 조금씩 자기 마음과 친구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.

현지는 승리를 위해 친구를 비난하고 통제하지만, 윤정은 상대방을 기다려주며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피구 그 자체를 즐기는 아이입니다. 서영은 현지의 울타리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윤정과 함께할 때 느끼는 자유로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체육대회를 계기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피구가 무엇인지 선택하게 됩니다.

3. 토론 질문

가. 가면을 쓴 아이 (이서영만 아는 이서영)

1. 서영이의 방에는 ‘이서영만 아는 이서영’이 산다고 했습니다.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?

- 1-1. 서영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책을 좋아하고 상상하기를 즐긴다는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? 그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.
- 1-2. 서영이는 이사를 식물을 옮겨 심는 ‘분갈이’에 비유했습니다. 낯선 환경에 놓인 서영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
- 1-3. 여러분에게도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거나, 친구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‘나만 아는 나의 모습’이 있나요?

나. 교실이라는 정글 (세렝게티의 초원)

2. 서영이는 교실을 동물의 왕국(세렝게티)으로 아이들을 포식자와 피식자로 비유했습니다.

- 2-1. 서영이는 현지의 무리를 '가장 피하고 싶은 아이들'이라고 생각하면서도, 현지가 피구를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합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
- 2-2. 현지는 팀이 졌을 때 "너 때문에 졌잖아"라며 친구를 비난합니다. 그런데도 아이들이 현지 곁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- 2-3. 서영이는 피구 경기 도중 일부러 공에 맞아 현지의 팀, 즉 '우리 편'이 되기를 선택합니다. 이 행동을 하나의 '생존 전략'으로 볼 수 있을까요?

다. 두 가지 관계 방식 (현지와 윤정)

3. 현지와 윤정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 어떻게 다른지 두 인물을 비교해 봅시다.

- 3-1. 현지의 집에서는 '여유의 냄새'가 나지만, 그 분위기는 서영이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. 반면 윤정의 방에서 나는 '숲의 향기'는 서영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?
- 3-2. 현지는 자신의 무리를 '울타리'처럼 관리하고 통제합니다. 반면 윤정은 서영이가 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줍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?
- 3-3. 서영이는 현지 앞에서는 늘 긴장하지만, 윤정 앞에서는 솔직해집니다. 이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관계란 무엇일까요?

라. 방관자와 용기 (하수구 사건)

4. 반 아이들은 이수현을 '하수구'라고 부르며 따돌립니다. 이 상황에서 서영이와 윤정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나요?

- 4-1. 피구 경기 중 수현이가 공에 맞았을 때, 윤정이는 "땅볼 아냐?"라며 나서지만 서영이는 침묵합니다. 서영이는 왜 그 순간 나서지 못했을까요?
- 4-2. 이후 서영이는 용기를 내어 "수현이가 아픈 건 아닌 것 같아"라고 말합니다. 서영이를 변화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
- 4-3. 괴롭히는 아이(가해자)와 침묵하는 아이(방관자) 중 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나요? 혹은 둘 다 같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? (찬반 토론)

마. 진짜 피구왕 (승리 vs 즐거움)

5. 서영이는 학교에서 '피구왕'이라 불리지만, 현지의 간접 속에서 점점 '피구 노예'가 된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.

- 5-1. 윤정이가 피구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. "재미있으니까." 어떤 일을 할

때 잘하는 것(결과)과 재미있게 하는 것(과정)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?

- 5-2. 체육대회 날, 서영이는 현지의 눈치를 보기보다 피구 공을 아침에 먹은 ‘오렌지’라고 상상하며 경기를 즐깁니다. 이 장면은 서영이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뜻 일까요?
- 5-3. 작가는 마지막에 “코트 바깥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”고 말합니다. 주인공은 꼭 코트 안에서 뛰는 선수여야만 할까요? 응원하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.

4. 캐릭터 심층 탐구 (비교하기)

구분	유현지 (포식자/1군)	최윤정 (비밀의 화원)	이서영 (경계인)
관계 맺기	관계를 통제하고 주도 내 편과 네 편을 분명히 나누며, 관계의 경계를 ‘울타리’처럼 확실히 그림	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 않음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림	상황을 살피며 관계의 경계에 머물 안전을 추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소통을 원함
피구 스타일	승부욕이 강하고 이기기 위해선 비난도 서슴지 않음	이기고 지는 것보다 피구 그 자체를 즐김 실수해도 괜찮다고 여김 (불편한 손으로도 즐김)	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공을 던지지만 점차 즐거움을 느끼며 던지게 됨
상징	울타리, 34평 아파트	숲, 헌책, 오렌지	가면, 분갈이
핵심 가치	승리, 우월감, 인정	즐거움, 존중, 자유	소속감 → 자존감(성장)

5. 예시 답변 (지도 가이드)

Q. 서영이는 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까요?

→ (예) 서영이는 잦은 전학을 겪으면서, 눈에 띄지 않고 무리에 섞이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. 책을 좋아하고 상상하기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, 혹시 친구들에게 ‘이상한 아이’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.

Q. ‘오렌지색 피구공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

→ (예) 오렌지색 피구공은 서영이가 더 이상 현지의 시선이나 승패에만 매달리지 않고, 피구 그 자체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. 윤정이를 만나며 알게

된, 결과보다 과정이 소중한 '진짜 피구'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.

Q. 작가의 말에 나온 '코트 바깥'은 무엇을 뜻할까요?

→ (예) 우리는 종종 경쟁의 한가운데, 즉 '코트 안'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. 하지만 작가는 한 발 물러서서 친구를 응원하고,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의 자리 또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